

할렐루야, 사랑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음주의 교회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로잔 글로벌 분석

로잔 운동의 지도부는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별, 이슈 네트워크 별로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공청회(listening calls)를 개최했다. 2024년에는 지역별 리더들과 함께 총 12회의 지역 간담회, 그리고 23개의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s)와 YLGen(청년 지도자 세대, Younger Leaders Generation) 네트워크로 구성된 24회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회의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각 그룹의 리더들이 회의에서 정리한 회의록을 제공했다.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역 보고서 개요

남아 있는 격차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나타난 주요한 주제는 '제자도의 필요성'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사랑과 연합' '리더십의 다양성'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는 교회'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집단(UPGs)' '이슬람의 팽창과 무슬림 전도의 필요성' '환경 위기와 창조세계 돌봄' '타문화 선교의 부족' '상황화의 부족' '직장 및 일터 사역의 필요성' '돌과구와 혁신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서 분석된 지배적인 주제는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사용' '자생적 선교 운동' '사역의 돌과구와 혁신'이었다. 협업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의 범주에 속하는 주된 주제는 '협력의 필요성'

과 '플랫폼으로서의 로잔운동'이었다. 추가 연구에 관한 네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디아스포라와 이민자' '사역의 사회문화적 상황' 'COVID-19 팬데믹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 '미전도 종족집단' '신학의 상황화' '교회 성장' '교회의 협력' '2세대와 젊은 세대' '리더십'이었다. 경청해야 할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2세대와 청년들' '성령' '현장의 사람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불신자들과 타종교의 사람들' '서로' '여성' '학계의 목소리' '현지인' '정치 지도자'였다.

이슈 네트워크 보고서 개요

24개의 보고서를 한 줄씩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총 247개의 주제 코드가 도출되었다. 집중 코딩 및 분석은 4

개 이상의 이슈 네트워크 공청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59개 코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의 범주에서 나타난 주요한 주제는 '제자도의 필요성' '청소년 참여' '사랑, 일치, 동반자적 협력관계' '새로운 외부 사역에 대한 교회의 수용' '총체적 관점의 부족'이었다. '상황화 부족' '외부 세계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사역자와 지도자 훈련' '자원의 격차' '현대 기술과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 '비전과 신뢰의 부족' '불신자들과 타종교의 사역' '언어 장벽과 성경 번역' '반기독교적 입법과 정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술' '사역의 돌과구' '교회의 영적 각성'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연합' '자생적 선교 운동' '새로운 지도자들의 부상'이었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의' 보통 사람들

얼마 전 딸아이가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겼다. 진단 결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순서가 되는 대로 수술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종합병원이 늘 그렇듯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다 큰 딸이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 기별이 없다고 하니 부모 마음이 초조한지라 '따지러' 갔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응급실 데스크 앞에 앉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옛되게 보이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친절을 다해 응대한다. 아이의 이름을 입력해서 확인한 그녀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순순히 아이 옆으로 돌아가고 얼마 뒤, 그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버님, 제가 지금 담당 선생님께서 여기 환자분 상황이 급하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급한 환자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곧 수술 일정을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면으로 계속)

간호사의 정성 어린 조치에 더는 정색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입원 수속을 돕는 스태프들이 와서 병실로 이동하는데, 그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잘 받으시고 잘 나오세요" 응원을 한다. 나도 웃으며 고맙다고 화답하는데, 그녀의 자리에 놓인 (나는 식별할 수 있는) 큐티집이 보인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을 뿐 아니라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오래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하나님이 부르신 보통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추앙하는 이들은 원래부터 특출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신 보통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그 짧은 간호사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의' 보통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론 백승철 목사



3면 푸른초장 박성호 목사



4면 인터뷰 양경석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발행인 칼럼

“나”와 “우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못 찾겠다, 꾀꼬리”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 술래가 더 못 찾겠으면 그렇게 외치면 되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숨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술래를 정하여 술래잡기를 계속하거나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다른 놀이를 하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노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혼자 놀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해가질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의 아이들은 혼자 논다. 같이하는 전자 게임도 각각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지 동네에서 친구와 같이 뒹 구르며 노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다. 각자의 “나”는 있어도 모두의 “우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우리”로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함께 하는 것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둔다.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얼마나 황량하겠는가. “나”와 “너”는 “우리”로 만나야 하고 살아야 한다. 마리아 앤더슨이란 유명한 흑인 가수는 이야기할 때 “나”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작곡해주어야 하고 누군가 반주해주어야 하고 누군가 도와주어야 내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자기의 잘남을 증거하는 순간이 아니라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 그는 “나”를 중시하지 않고 “우리”를 중요시하며 살았다. 그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우리”의 파스함은 아직 곳곳에 짙게 배여 있다.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와 의사와의 분쟁은 그 출발부터 모든 국민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논리와 명분이 있어 각을 세우고 있고, 대치 국면을 오래 끌고 있다. 전 국민이 가슴을 치는 아픈 갈등 속에 “나”만 돋보일 뿐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원래 “품앗이”의 전통과 “두레”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혼자자 아니라 같이 일하며 서로 도와주는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나라이다. 언제부터인지 집단 이기주의가 “품앗이”와 “두레”의 정신을 짓밟고 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영역주권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고유한 영역도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각 나라의 정부에 맞대응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때문에 “나”가 무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더 큰 가치인 “우리”를 버리면 결코 안 된다. 작금(昨今)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질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정부는 그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마태복음 6:5-15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모든 기도가 똑같지 않다고 경고하셨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먼저 주의를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셨다.

위선자의 기도

첫째, 예수님은 위선자, 즉 기도 쇼를 하는 자들을 경멸하셨다. 기도를 위한 오후 번째 시간(오후 3시경)은

이방인의 기도

둘째, 예수님은 비유대인의 기도를 경멸하셨다. 그들의 기도 방식은 신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말을 쏟아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존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결국, 때때로 기도하는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다면 신을 경건하게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MP, 호주 총리시어... 이런 식으로 말

의 아버지시라면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호칭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 것이다. 인간도 아침과 헛된 말을 간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는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아부부터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며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좋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이 다른 신도들과 함께 반잡한 거리로 나가거나 회당에 나갈 때이다. 따라서 그 시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참으로 얼마나 경건한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한쪽 눈을 뜨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이 자기 상을 온전히 받았느니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기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당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 즉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뿐이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사람의 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강력한 기도는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않고, 오로지 당신과 하늘 아버지 사이에서만 소통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이다. 누구나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 기도 이상으로 능력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왜? 왜냐하면 그런 식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요점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돌아간다. 8절에서 예수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강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아버지께도 나아가간다. 나는 알바니스 총리의 아들이 그를 “총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서 그런 호칭이 나올 리가 없다. 이제 당신은 왜 하나님이 당신

은 인상을 주기 위해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관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정의로우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교도들과 위선자들이 저지른 진짜 실수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몰랐다. 이교도들은 기도의 힘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마법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오랫동안 주문을 의우다 보면, 어쩌다가 딱 맞는 단어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은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성경·찬송가 | 기독교의 모든 것 | 일반서적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주석, 설교, 기독교사건 등 시리즈 전집류 재고 특가세일 권당 \$7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주해: 펜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정: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시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서전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김성국 목사
서기: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김요섭 목사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음주의 교회

(1면에서 계속)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주된 주제는 '협업의 필요성' 플랫폼으로서의 로잔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었다.

네 번째 질문의 범주에 속하는 중요한 주제는 '모범 사례 연구'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전도사역 연구' '미전도 종족 집단 연구' '기금 마련 및 자금 조달' 'Z세대 및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보는 사역에 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관한 연구' '현재 이슈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관한 연구' '신학의 상황화에 관한 연구'였다.

다섯 번째 질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Z세대와 젊은 사람들' '세계 다수의 지도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도착민'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여성' '성령' '불신자와 타종교인' '서로' '비즈니스 리더' '디아스포라와 이민자'였다.

을 위한 제자도와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자도와 사역 훈련의 기본 접근 방식은 사역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 되는 또 다른 강조점은 사랑, 연합, 동반자적 협력 관계였다. 지도자들은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교파적 배경과 조직적 경계를 초월하는 기독교적 사랑과 일치에 기초한 협력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복음주의 교회가 당면한 남은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패러다임 전환의 측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도자들은 사역의 접근 방식에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축적된 사역 지식을 통해 프로그램과 활동의 수행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했다.

돌파구와 혁신

사역에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과 미디어의 유용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의 사용 덕분에 사역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지도자들이 공감했던 것

적응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협업

협업의 필요성은 많은 그룹에서 길게 논의되었다. 로잔운동을 글로벌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는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지도자들은 로잔운동에 대해 대단한 신뢰를 표명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 공유에 대한 강조는 협업을 위한 상호 노력의 기반이 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사역의 협업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이자 플랫폼으로서 로잔운동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 그런 기대감은 매우 건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관련된 관심과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반영한 미래 연구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 부족이라는 주제는 복음주의 선교계에서 취약한 영역을 드러낸다. 이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들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가능하다. 경청에 대한 학제간의 접근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는 체계적인 경청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경청은 연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지식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세분화되거나 계층화된 접근 방식보다는 학제간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복음주의 교회 앞에 놓인 격차와 도전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역에서 다루어야 할 현재의 문제와 도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역에 대한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다.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동원한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대체로 글로벌화는 기독교 사역에서 광범위하고 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글로벌화는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복음주의 공동체에서는 연합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표명되었다. 지역적, 교파적, 세대적 배경

시론

주민투표 발의안에 시선이 고정되는 이유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지난주 미주크리스천신문 1면 5단 광고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광고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다급한 심정이 가득하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t of 2024) 서명에 관한 광고이다. 11월 선거에 주민투표(Initiative Measure Ballot) 발의안으로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이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이 왜 상정되어야 하는가? 그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자녀들의 정체성 회복, 둘째, 학부모 권리 회복, 셋째, 여학생 사생활 보호이다.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너무나 보편적이며 타당한 생각이다.

하지만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 변화는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할 것이다. 목표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은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혼란을 예고한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부터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나타내게 될 현상에 대해 시선을 집중해 보라. 그리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반대영역에서 어떻게 성경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벗어나는지를 상상해 보라.

첫째(안전), 공립, 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할 당시 성별로 사용하게 함. 둘째(공평), 7학년부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셋째(학부모 권리),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넷째(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다섯째(납세자 세금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타날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주민 발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유효 서명 수가 550,000이다. 무효화 될 것을 고려하면 총 700,000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의 목표는 70,000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208,455명이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서명 숫자는 훌쩍 넘어야 한다.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 외에도 계빈 뉴섬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젠더, 성향: SOGI)'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에서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을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2년 12월 13일에 동성인정법안(결혼중립법)에 서명했다. 평등, 자유,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자축했다. 이것이 복음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뿔이 열 개 달린 괴물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애로 포장된 모습으로 공격한다. 적어도 교회는 동성애와 출생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죄(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평등, 자유, 정의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복음이 평등, 자유, 정의를 제약하는가? 복음이 인간애를 무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에 오심으로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흘러 넘치는 것)하다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그 충만한 복음의 진리가 인간애, 평등, 자유, 정의라는 이름으로 결코 약화될 수 없다.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눅 19:40)

www.epipodo.com

다양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동원한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고 20회 이상 회의에서 6개의 코드가 나왔다. 그 코드는 다음과 같다: '협업의 필요성'(36회의 회의);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술 사용'(29회); 'Z세대 및 청년 세대의 소리 듣기'(27회); '제자도의 필요성'(25회); '사랑, 화합, 동반자적 협업'(20회); 및 '사역의 돌파구'(20회). 36개의 모든 공청회에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 회의에서 총 102개의 집중 코드(이슈를 다루는 4개 이상의 그룹)가 나타났다.

틀과 남은 기회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들과 지도자들

은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더욱 연합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지도자의 출현에서 기인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공감한 바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사역에서 돌파구가 목격되고 있다. 혁신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면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 접근 방식을 혁신하는 문제는 사역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며 이것은 바로 상황화 작업의 일부이다. 창조적인 과정으로서의 혁신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상황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획기적인 혁신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역 환경의 변화에

논의와 제안은 실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미래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더 많은 연구에 대한 요청은 인류의 상황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포함하는 선교 신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연구 결과를 세계 교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섬김의 표현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경청의 대상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를 넘어서는 생각이 필요하다. 성령님께 귀 기울인다는 것은 복음주의 신앙의 규범이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교단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느라 너무 분주하다.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공동의 훈련으로

의 다양성 속에서도 강력한 연합이 느껴졌다. 동시에, 다른 사역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사랑과 일치를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있었다. 사역의 전략적 제휴와 사역의 혁신을 위한 특별한 결집을 위하여 2024년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로잔대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복음주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다년간 걸친 다중심적(polycentric) 접근은 합리적인 방식이다. 경청하려는 노력은 발전을 이루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공유된 공동체적 지혜로 우리는 사역 현장에서 창의적 접근을 위해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

by 문상철, TGC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진정한 부자

몇 년 전에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뉴포트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옛날에 부자들이 살던 집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나는 Breaker라

는 제일 유명한 집을 방문했었다.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곳에 들어가서 귀에 쫓는 녹음기로 설명을 듣는데 그 집은

1800년대 말에 지어진 것인데 정말 화려한 집에서 부자가 살았다. 집에는 가족을 위한 15개의 방이 있었고 30명 이상이 되는 종들이 자는 작은 방들이 따로 있었다. 아침과 저녁을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 파티를 여는 룸은 굉장히 컸다. 그 집 주인 되는 사람은 그곳에서 일 년이면 파티를 여러 번 열었으며 파티 때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직접 곡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방을 보여 주는데, 방은 방마다 좋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옷을 갈아입는 방도 너무 컸다. 그리고 각 방에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된 욕조에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모습은 부자가 참 호화롭게 살았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는 책이 가득 꽂혀 있는 서재로 갔는데 그곳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비극적인 말을 들었다. 그렇게 부자로 산 사람의 자녀들이 일찍이 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흥여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을 들으며 아니 돈 많은 부자의 자녀들이 흥여도 치료받지 못하였다는 말인가 생각하다가 아, 그 시대에는 아직 흥여를 고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큰 부자라도 자기 자녀들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부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녀들의 이른 죽음에도 굳건하게 살다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부자들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야 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집에 살던 사람 중에 자녀들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다.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도 순서만 조금 달랐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남은 것은 그들이 쓰던 집과 가구들뿐이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살았지만,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

은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다. 잠시 후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저축하여 놓은 것을 가지고 부를 계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박성호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이 사사기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몇가지 이유에서 좀 특별합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첫째로, 지금까지는 다른 사사들이 전쟁을 치른 후엔 '땅이 평온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3:11,30; 5:31:8:28). 그러나 기드온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 시대에 가서는 다른 사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평정했다'는 말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한 없는 겁쟁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는 모습은 모양이 많이 빠집니다. 이런 그를 위해 하나님은 두차례나 기적을 행하셨고, 그가 적진에 몰래 들어가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해서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요(삿7:9-15). 그런데 이후에 기드온은 기가 막힌 전쟁 구호를 백성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삿7:18). 무슨 말 일까요? 전쟁의 영광을 자기도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탐하고 왕처럼 행세했던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를 은근히 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권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겉으로는 아주 정답을 잘 말했습니다. 8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절). 얼마나 합당한 답변인가요.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 그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거의 즉각적으로 자신이 한 말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전을 요구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합니다. 금18kg이 넘는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

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성읍 오프라에 둡니다(삿8:27). 자기 동네를 또다른 성소로 만들어 하나님을 찾는 성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현실화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들로부

비멜렉을 통해 심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사사기 9장 이후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내용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민족을 분열시키고(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지금의 행태와 그리 다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나무들이 자기들을 위한 왕을 찾아 나섭니다. 감람나무(8-9절), 무화과나무(10-11절), 포도나무(12-13절)에게 찾아가 왕이 되어줄 것을 청하지만 다들 각자의 이유로 정중히 사양합니다.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유용한 자산인가요? 제의용으로 사용되고 식용 뿐만 아니라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올리브 나무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중동지방에서 가장 흔한 열매이지만 없어서는 안될 열매입니다. 설랑이 없는

나무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작은 일들이 다 있으며 그 소명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존재목적은 모르기에 진정한 가치를 모르며 남들이 자기 밑에 들어와야 직장 흔한 열매이지만 없어서는 안될 열매입니다. 설랑이 없는

시로 쉽없이 자신을 찢어대고(자학) 남들을 찢어냅니다(가학). 사실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가시나무가 되어 살아갑니다. 하덕규 목사는 '가시나무'라는 아름다운 시를 담은 노래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매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 곳 없네." 당신의 내면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자아상을 가졌던 아비멜렉의 숨겨진 모습이 없다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 바람만 불면 매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와 가시로 얼룩졌던 인생들을 향해 2천년 전, 질곡의 무게를 담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서 포도나무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비멜렉 같이 허황된 가시나무들도 온전하고 풍성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빈곤한 자의 식에 빠져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경계를 발견하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채워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unghopark@kepc.org

가시나무왕 아비멜렉

사사기 9:7-15



터 칠십 명의 아들을 두고(왕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계 여인에게 서자를 하나 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My Father is King)'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왕을 향한 욕망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이 불행한 욕망의 씨앗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 아

비멜렉을 통해 심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사사기 9장 이후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내용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민족을 분열시키고(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지금의 행태와 그리 다른

시절 모든 당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최고의 디저트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져 드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귀한 나무입니다. 요담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 아름답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기

늘이 될 수도 없는 매마른 나무이지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삿9:15)고 떠들어 댁니다. 존재 목적을 모르는 이들의 특징은 숨길 수 없는 열등감과 분노입니다. 분노의 불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귀한 나무까지 태우겠다는 으름장을 높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왕이 될 자격도 없으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려 합니다. 불안정한 자의식을 갖고 아래저레 자기 속에 있는 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2면에서 계속)

아니면 자신들이 얼마나 존경심 있고 진지한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조작으로 움직이는 신은 결코 진정한 신 또는 강력한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술수를 써야 하는 신에게 사랑이 있을 리 없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위선자들은 기도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다. 기능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기도의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도가 주는 유일한 유익은 사교였다. 그들이 기도하는 신은 아마도 기도로 조종되는 이교도 신보다 더 형편없는지도 모르겠다.

하를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시고 듣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 기도는 나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진짜 기도,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우리는 나의 불안, 어려움, 약점, 죄를 들고 나아간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루고도 남을 만큼 크고 사랑이 넘치신다. 그는 지혜롭고 능력이 넘치며 사랑에 가득하여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이다. by David Mitchell, TGC

땅에 속한 허망함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있는가? 푸른 잔디에 수영장을 가진 하얀집을 소원했던 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장은 메꾸어서 상추밭을 만들고, 집 앞 잔디밭은 귀찮은 나머지 돌길을 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도, 살다 보면 그냥 집에 불과한 것이 이 땅의 한계있는 복의 모습이다. 인생에 완전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

오래전, 아프리카남아프리카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에, 탈출하려고 철조망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 가운데, 미군의 손을 잡아 세계 이곳 저곳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결국 그 삶이 그 삶이더라는 것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라고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청교도의 신앙아래 그 질서가 유지되어 깊은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외로운 이민자의 삶에 깊이 탄식하는 이들도 많다.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

월을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허무한 시절, 후회막심한 시기를 보낸 때였다. 그러나 그런 야곱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 베엘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영혼의 숨통이 트여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곱의 베엘,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주님의 교회이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에 나아오면 소망이 있다. 소망은 생명이다. 교회에 생명의 근본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기때문에, 어떤 죄악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돌아나게 된다. 삶이 돌아나고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된 행복, 은혜 가운데 낙심과 피곤을 넘어서는 영혼의 만족함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다.

성전, 주님의 교회,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은 성전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세계 인류가운데 유대인에게만 성전을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지를 잡아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자색 옷도 주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었다. 신도 신겨주고 기뻐하며 잔치도 베풀어주었다. 그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며, 실체이다. 교회를 통해 그의 돌아온 탕자같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교회로 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녀삼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일,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잘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벌여보지만 잘 되지 않았다. 교회에 팔려나가던 영국을 보라, 공산 불세비키 혁명으로 무너져내린 러시아를 보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는 중국을 보라,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우상을 세운 북한을 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복을 빌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안되는 것이다.

한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만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애굽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다윗과 같이 누가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시122:1)고 말할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한다. 그때 다윗의 예배 장소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었다. 천막으로 궁중에 살면서도, 그 천막 교회를 궁궐의 천날보다 더 사랑한 것이 다윗이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이가 다윗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복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어, 교회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교회와 함께 끝나는 삶이다. 실제로, 유아세례로부터 장례예배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 나아오므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 주셨다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최근에 장례식에 참여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지만, 아직 죽은 후의 천국이나 사후세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안됩니다. 죽은 후에 벌어질 사후세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든그로브 주집사

성도의 사후세계

A: 제가 과거 신학교에 들어가 1학년 때 Apologetic (변증학)을 배우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기독교 변증학은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전제론적인 변증 (Presuppositional)"이라고 말한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제론적 변증의 요지는 '이해가 다 되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어거스틴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CREDO UT INTELLIGAM) 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 사후세계 등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하나씩 점차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이해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Faith is the foundation of understanding) 이것은 정통 기독교의 인식론이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두가지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톨릭의 연옥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7일 안식교나 그 밖의 다른 그룹에서 주장하는 영혼 수면교리입니다. 로마가톨릭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성인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가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카타르시스 즉 정화를 위해 Purgatory(연옥)이라는 곳에서 불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연옥이라는 장소나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는 영혼 수면설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심판을 받을 때까지 무의식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몸이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잠자면서 누워있는 것처럼 망각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나감 같으면서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후 부활 때까지 영혼과 육신이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은 후의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신학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파고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전도서 3:20-21절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고 했고 읊은 고백하기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내영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얼마 못가서 천국에서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을 준비하시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고 바울은 고후 5: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 이끌려 순식간에 지구를 벗어납니다. 첫째하늘과 둘째하늘을 통과하여 세째하늘 3층천(The third Heaven)으로 갑니다. 첫째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이고 둘째하늘은 지구를 벗어나서 별들이 있는 은하계의 하늘이고 세째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거하는 천국의 하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히 9:24절을 보면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곳이 하늘의 지성소인 3층천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하늘의 지성소와 같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삶 속에 항상 교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한가운데는 항상 교회가 있다. 죽은 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축복된 신앙의 삶이다. 항상 신앙이 되어야 한다. 교회로 피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Worship & Education 4

교회와 세상, 참된 회복

-세상, 출애굽 성도, 항상 교회-

출했는데, 많은 사람이 알뜰 중독에 빠졌다고 한다. 남한이 낙원인줄 알았는데, 고향 떠난 아픔을 술로 달래다가 술이 그들의 꿈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절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탈복을 넘어서 주님께로, 주님의 교회로 피한 이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누리라는 가운데, 삶의 행복함이 따라오는 감사가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 좋아도 한때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터전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된다. 세상이 좋아도 한때다.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였으므로 나아와야 한다. 구약의 야곱을 보면, 하나님 없이 푸른 초장에 장막과 우릿간을 짓고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러나 한때였다. 그의 가정을 보면 도저히 믿는 사람, 믿음의 조상에 속한 가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였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적당히 세상과 섞어 사는 신앙생활은 잘 사는 듯 보여도, 행통이 아니었던 것이다.

야곱이 살던 세상은 충분히 살기 좋아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불통한 생활터였다. 하나님의 약속도, 예배도, 기도도 없던 곳이었다. 결국, 큰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고, 훗날 그의 130년 삶을 가르켜 스스로 험악한 세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마다, 성경에 약속한 성전의 복을 받게 되었다. 성전에 모든 복이 있다. 주님의 교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샘이 솟아오른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가 찾고 찾아서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이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나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기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긍휼을 덧입게 된 것이다.

교회를 통해 복 주심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살진 송

교인들 중에는, 교회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 결과, 교회를 경홀히 여기게 된다.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듯이,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평생동안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 살며,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주의 성전으로 출애굽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얻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다.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육에 속한 저주의 땅을 떠나,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고단하고 소망없는 바로의 무거운 쇠사슬을 벗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한파 디로, 세상에 속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와 성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애굽의 억속

것을 깨닫게 되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천국을 향하여 충성하다가, 교회 안에서 그 생애를 마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로 와서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 재미나 친분 관계 때문에 나오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도, 결국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곳이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 천국과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이다.

애굽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의 땅 애굽에서 사는 것이다. 생존이며, 연명하는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그 삶에는 절망과 근심, 미움과 시기만 존재할 따름이다. 왜 그러한가? 영생이 없으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니 물질적이 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삶으로 귀결된다. 죽은 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출애굽한 성도의 삶은 참 생명, 새로운 꿈이 있는 삶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설교를 상품화 하지말라”

어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속한 기자가 설교에 관해서 책을 쓴 저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잠깐 들으면서 설교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였다. 많은 설교자들의 고민이 담긴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의 질문은 설교자들의 고민이면서 동시에 회중들의 기대치이

기도 하다. 회중들은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찾는다. 그런데 필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의 질문과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찾는 회중들에게 조금은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 싶다. 잘하는 설교를 추구하면 설교자도 회중도 모두 점점 변질되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잘하는 설교는 설교자를 흥하게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쇠하여지

게 하기 때문이다. 잘하는 설교를 추구하는 것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설교는 상품이 아니다. 만약 설교가 상품이라면 잘하는 설교를 추구하는것이 맞다. 그러나 설교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두번째 위격이신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이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설교자들이 갖추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과녁을 벗어나게 된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과는 상관 없는 기교 넘친 연설이 되고 말 것이다. 참된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목표로 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풍성하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참된 회중은 잘하는 설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즐거이 터져 나오는 설교를 찾는다. 이것이 설교에 대한 설교자와 회중들의 수준이며 품격이다.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회중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할 것인가? 였다. 저자의 대답은 설교의 논리성이었다. 설교가 논리적으로 잘 전개가 되면 회중들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되고 삶의 변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설교의 논리성이 핵심이 아니다. 삶의 변화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How) 전달하는가의 방법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What)을 전하는가의 내용이 핵심이다. 설교 내용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경은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Problem)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Solution)을 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된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고 그리고 균형있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회중들은 설교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듣기를 갈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점

하여 설교를 전하면 먼저는 설교자가 성령으로 불붙게 된다. 하나님이 설교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머리속에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설교 원고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에는 어렵도 없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가슴이 불붙은 설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불이 붙으면 설교자를 새롭게 하고 회중들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맛을 모든 설교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라. 그 맛을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찾아 탐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쓰러진 상태에서 쓰러짐을 뒤지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화를 캐내고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시된 성경말씀을 끊임없이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져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설교가 될 것이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디오 성경 이용률 급증이 불러온 논란... 읽기·듣기, 어느 것이 최선인가

미국의 오디오 성경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미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듣을 이어버드 있는 자는 들으라'란 기사에서 "오디오 성경 종류가 늘면서 이를 이용해 성경에 더 쉽게 접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달 28일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많은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글패스로 오고 이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안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고 돕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배고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이곳을 찾는다. 텍사스를 비롯한 국경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글패스는 멕시코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경 지역이다. 지난 1월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의 급증을 막으려고 쉐버 공원을 통제할 바 있다. 그레이엄 목사는 이 공원을 방문했다. 이글패스에 있는 지역교회의 길버트 에레라 목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집회에서 나는 메시지가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회향했다. 이번 전도 집회는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의 10개 도시 등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BGEA는 이번 행사에 지역교회 100여곳이 협력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10일 인스타그램에 "국경을 따라 이동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신뢰를 두라는 초대에 응답해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들과 남부국경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BGEA는 그레이엄 목사의 아버지이자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50년 설립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00년에 BGEA 대표로 임명됐다. 1970년에 설립된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삶의 과녁으로 삼아라" ...

"양궁을 가르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역의 진정한 사명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감사하게도 수강생 모두 양궁 연습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성경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 미네랄침례교회 양궁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바비 배닝은 SNS 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11일 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남침례교회 소속 미네랄침례교회에 따르면 교회 측은 매년 여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주 과정의 양궁 교습을 이어오고 있다. 수업 정원은 50명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의 양궁 사역 취지는 분명하다. 강습생 모두가 '그리스도를 삶의 과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강습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되는

데 반드시 성경공부 등을 통한 복음전파 시간을 갖는다. 이들 교회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기존 실내 체육관에서 이어오던 수업 장소를 야외로 옮겼다.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 전파 수단으로 '양궁 전도'는 이미 교단을 초월하고 있다. 미 뉴욕주의 초교파교회인 빅토리아교회 역시 태권도 양궁 피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강습을 마련해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있다. 스포츠를 도구로 활용해 교회 문턱을 낮춰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빅토리아교회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2K 양궁 프로그램'은 구약성경(왕하 13:15-17)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과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미 아이오와주 복음주의자유교회 소속 저니교회는 지난해 3월 체육관을 빌려 실내 양궁 프로그램을 1년째 이어오고 있다. 교인들 실력도 수준급이다. 국립 양궁학교 프로그램을 적용한 커리큘럼과 국가 공인 양궁 코치가 강사로 나서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저니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약 한 달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매주 목요일 초중생을 대상으로 85분씩 양궁 강습을 하는데 핵심은 성경공부 시간이다. 교회 측은 매주 한 차례 양궁을 가르치는데 강습 말미에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빼놓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저니교회 SNS 댓글을 통해 "우리 아이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말 멋진 사역"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나이지리아서 여성·어린이 수백명 납치... "기독교 박해 일중"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300명에 달하는 어린 학생을 납치해 현지 기독교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이 지난 7일 나이지리아 카두나리의 한 학교를 공격해 최소 287명의 학생을 납치했다. 무장 과한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공립학교를 포위하고 오후에 학생들을 인질로 붙잡아갔다.

당국은 당초 100명 이상의 학생이 납치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187명의 중학생과 100명의 초등학생 등 모두 287명이 납치됐다고 최종 보고했다. 이번 사건은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난민 캠프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한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영국 최대 200명이 보르노주 감부루 응갈라 마을에서 장작을 모으던 중 납치됐다고 전했다.

선교단체 오픈도어스의 나이지리아 담당인 조 뉴하우스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여성과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며 "이는 2014년 4월 치복중학교에서 기독교인 여학생 276명이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때를 상기시킨다"고 우려했다. 10년 전 납치됐던 여학생 중 100명 이상이 현재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뉴하우스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공격과 납치가 지난 10년 동안 심각해졌고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변호사인 자베즈 무사는 한 기독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기독교 박해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다"고 귀띔했다. 오픈도어스영국 헨리엠타 블라이스 대표는 "보코하람은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납치와 살해, 강간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며 "나이지리아에서 극단주의자들에게 포로로 잡힌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픈도어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보코하람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3만7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인의 생명이 위협한 국가 6위에 올랐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다큐 수상에 "마리우폴 공포 잊어선 안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 20일'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하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영화를 만든 제작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했다. 이어 "우리는 마리우폴의 공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세계가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침략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우폴 침공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를 알지 못하지만, 인공위성 사진으로 수천 개의 무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마리우폴과 부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러시아는 가능한 많은 도시를 침공하려 한다"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단이나 지체 없는 국제적인 지원이 왜 우크라이나에 중요한지 상기시켜준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러시아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공포에 벗어난 일상을 재건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10일 개최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우폴에서 20일'은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초기 항구도시이자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던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마리우폴에 갇힌 AP통신 취재팀이 참혹한 현장을 기록했다. 아카데미에 앞서 지난해 5월 풀리처상 공공보도상도 수상했다. 공공보도 부문은 풀리처상 14개 부문 중 대상으로 유일하게 금메달을 함께 수여한다. 영상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스티븐 슬라우 체르노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만 이 무대에 올라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최초의 감독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이 영화를 맞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쟁 중심지서 북목사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

많은 이들이 미국 남부의 국경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지역 교회 1000곳과 손잡고 그곳에서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보듬었다.



그레이엄 목사와 빌리그레이엄복음주의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가 지난 25일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에 이르기까지 '갓 러브 유(God Loves You)' 전도 집회를 잇따라 개최해 지역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87. 김창근(1872-?)

Kim, Chang Keun	40	married	Chook Dong
Kim, Chang Keun	32	widower	Al Woo Kai
Kim, Chang Keun, daughter (Heung Soon)	7	single	Chook Dong
Kim, Chang Keun, daughter (Kan Ani)	12	single	Chook Dong
Kim, Chang Keun, wife	39	married	Chook Dong

두 김창근 (이덕화가 정리한 호놀룰루 도착 헌명단)

김창근은 한국에서 1872년경에 태어났다. 결혼하여 애우개 (서울 애오개)에서 거주하였는데 홀아비가 된 그가 1904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의 꿈을 가지고 그해 8월에 제물포를 떠나 일본에서 그달 10일에 개리 기선에 승선하여 그달 22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다른 김창근이 있었다. 그는 1864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어느 도시의 죽동 (대전 죽동?)에서 거주하다가 40세가 되던 1904년 8월에 제물포를 떠나 일본 고베에서 그달 24일에 코리아 기선을 타고 다음 달 5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 살 적은 아내와 일곱 살 된 딸 흥순과 열두 달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호놀룰루에 내렸다. 그리고 비슷한 영문 이름으로 표기된 김창근 (Kim Chang Koun)이 1903년 3월 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인천 내리교회 담임목사였던 조지 존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김창근은 이민자 서류에서는 Kim Chang Keun으로, 미국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록에서는 Kim Chong Kun 또는 Kim Chang Ken으로, 초기 하와이 한인 교인 명단에서는 Kim Chang Koun으로 통했다.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1916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북감리교 제11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감독 윌슨 S. 루이스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윌리엄 H. 프라이 목사였고, 한국 사역 총무는 4년차 연수 중인 준회원 김재성이었으며, 한국어 통역관은 한인 여자 기숙학교 교장이었던 우남 이승만이였다.

제11회 하와이 선교연회 중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는 그달 20일에 루이스 감독이 주장한 4명의 한국인 목사 안수식이었다. 흥한식 목사가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의 정회원이 되

었고, 김재성과 이관목과 박재환이 위의 연회의 준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조한식이 지방전도사의 과정을 온전히 이수하여 준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날 준회원으로 안수받은 외국인으로는 코르넬로 C. 라미레스 목사와 일본인 카메노스키 다나가 목사도 있었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 산하에 여러 한국인 감리교회가 있었다. 오아후섬에는 예와, 호놀룰루, 가후구, 와일누아, 가하루 그리고 와하아와에 7개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고, 마위섬에는 스프레클스빌, 파피아 그리고 하나에 3개 한인감리교회가 있었으며, 하와이섬에는 고할라, 힐로, 하갈나우, 호녹가이지, 구구해리, 파할나, 남 고나, 북 고나, 파랄노아에 8개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다.



윌슨 S. 루이스 감독

그해 가와이섬에는 한국인 감리교회가 넷이 있었는데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리취 한인감리교회 그리고 길나위아 한인감리교회였다. 위의 한국인 교회들 외에도 가와이섬에는 막가웰리, 엘리엘리 그리고 각가하에 필리핀 교회가 있었고, 기알리아와 가파에 일본인 교회가 있었다.

김창근은 하와이에 온 지 12년이 지난 1916년에 개최된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에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김창근 외에도 지방전도사로 고석C가 파송을 받았고, 담임목사로 이선일 목사가 파

송을 받았는데 이 목사는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외에도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도 맡아 순회 목사였고, 골로아에 있던 한국 학교도 맡았다.

그달에 보고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와 합친 보고였기 때문에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 합쳐진 교세에 따르면 두 곳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교직원 9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75명이었고, 학습교인은 8명이었으며, 세례교인은 73명이었고, 엠워스 청년회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이 18명이었으며, 두 곳에 각각 예배당이 있었는데 당시 시가가 두 교회 합쳐 1,950달러였고, 한 해 동안 연료비와 전기비 등에 135달러를 지급하였으며, 한 해 동안 하와이 선교연회로 44달러를 헌금하였다.

참고로 그달에 보고된 하와이 선교연회의 교세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1년간 세례를 받은 교인이 278명이었고, 회기 말 당시 학습 교인과 세례 교인이 1,885명, 예배당이 22개, 총 예배당 시가가 113,250달러, 사택이 6개, 총 사택 시세가 14,525달러, 엠워스 청년회가 15곳, 엠워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이 448명, 주일학교가 38개,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1,412명이었다.

1917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서 김창근이 1년간 수고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의 형편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정황상 1917년에 모였던 제12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김창근이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개최된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그가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지방전도사가 되기 전에 3, 4년간 권사로 파송 받아 지방전도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1914년과 1915년에도 권사로 파송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해의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윌리엄 H. 프라이 감리사

1918년 3월 현재의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가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되었다. 지난 1년간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에서 성인 7명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1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성인 4명이 학습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달에 등록된 학습교인이 22명이었고, 등록된 세례교인은 5명이었다. 주일학교에 7명의 교직원 이 있었는데 등록된 학생수는 적혀있지 않았고, 엠워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은 23명이었

다. 1,000달러 시가의 예배당 건물

EXHORTERS	
Filipino- Gregorio Bernaldo	Elele, Kauai
Korean- Chong Kun Kim	Koloa, Kauai
Wan Kin Ahn	Honolulu, Oahu
Suk S. Song	Honolulu, Oahu
Sung Man Kim	Nouane, Oahu
Suk Sang Yoon	Honolulu, Oahu
Chung Soo Ahn	Wailuku, Oahu
Kwang Yik Park	Wailuku, Oahu

1916년 하와이 선교연회록의 한인 권사 파송명단 (위에서 두 번째가 김창근)

있었고, 예배당 건물에 지난 한 해 동안 50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훈련을 위하여 20달러를 헌금하였다.

1918년의 제13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창근을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해 담임목사는 작년에 파송된 이선일 목사 대신에 김재성 목사가 파송되었는데 그는 이전 이선일 목사와

Korean-	
Wan K. Ahn	Honolulu
Suk Y. Kim	Honolulu
Nak M. Park	Ewa, Oahu
Wan M. Chung	Ewa, Oahu
Oh S. Song	Ewa, Oahu
Nyer S. Whang	Makaha, Oahu
Yun Soo Chung	Makaha, Oahu
Chang S. Ahn	Wailuku, Oahu
Yun S. Chung	Wailuku, Oahu
Chong T. Kwak	Koloa, Kauai
Chang Keun Kim	Spreckelsville, Maui
Tung K. Kim	Hana, Maui
Yun W. Yib	Hana, Hawaii
Suk C. Cho	Bala, Hawaii

1918년 하와이 선교연회 한인 지방전도사 파송명단 (아래서 6번째가 김창근)

같이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외에도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도 맡았으므로 순회 목사였다. 그리고 그해 권사로는 이종관이 파송되었다.

그런데 1919년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록 pdf 파일에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찾을 수 없어 김창근의 선교 열매를 알 수 없다.

1919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북감리교 14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창근을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다시 파송하였다. 본 연회 석상에서는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와 더불어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의 순회 목사로 임시 목사가 파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후 박 WT가 파송되었다.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된 제15회 하와이 선교연회에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

Korean-	
Wan Kin Ahn	Honolulu
Say Yun Nam	Honolulu
Wan Myung Chang	Honolulu
Kyeol Shin Whang	Honolulu
Chi Song Song	Wailuku, Oahu
Yun Soo Chung	Wailuku, Oahu
Chai Duk Ahn	Makaha, Oahu
Chang Keun Kim	Koloa, Kauai
Chung Keun Kim	Honolulu, Hawaii
Moon Choon Lee	Honolulu, Hawaii
Yun Whan Whang	Honolulu, Hawaii
Sung Hun Shin	Panaloa, Hawaii

1919년 하와이 선교연회 한인 지방전도사 파송 명단 (아래서 5번째가 김창근이다)

회 교세가 보고되었으나 같은 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교세와 합쳐져 있어서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 교세만 따로 확인할 수 없으나 두 교회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아세례를 받은 아기는 3명이었고,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 훈련을 받은 다음 세례를 받은 자가 26명이었으며, 학습을 받은 자가 20명이었다. 그래서 그해 등록된 학습교인은 20여 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교회에 각각 예배당과 목사관이 있었는데 전체 시가는 2,420달러였고, 네 건물에 120달러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100주년 헌금으로 두 교회에 68달러를 헌금하였다.

그런데 그해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와 같은 섬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의 교세를 하와이 선교연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의 통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와이 선교연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아기가 109명이었고, 입교한 자가 127명이었으며, 세례를 받은 자가 178명이었고, 회기말 학습교인은 620명이었다. 그래서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와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유아세례는 하와이 선교 연회 전체 교회의 3%였고, 입교자는 전체 교회의 20%였으며, 학습교인은 전체 교회의 7%였고, 등록된 학습교인은 3%였다.

1920년의 제15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창근을 파송하지 않았다. 단지 안SN 목사를 임시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는데 예전과 같이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도 맡았다. 이해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파송된 지방전도사와 권사 명단이 없어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에 지방전도사와 권사를 파송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후 김창근의 이름은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Wan Chang Koun	1872	1872	1872

1920년 연방정부 인구조사

않았다. 김창근은 정황상 1915년 2월부터 1920년 2월까지 5년간 가와이섬 골로아 한인감리교회에서 권사와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해 김창근은 인구조사에 응했다. 47세였던 그는 아내 김영옥과 함께 거주했고, 세 살 된 종순과 11개월 된 화순을 낳아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의 집에 43세의 현상학, 37세의 이덕수 그리고 36세의 김한수가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독신이었다. 1920년 이후 김창근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4>뉴욕양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8:00</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예배: 오전 5:45 진교인특별사역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3:45 주일 5부 예배: 오후 6:00 세례기도: 매월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장로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장로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 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9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4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장로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장로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h4>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9장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추론한 의무들 (3)

(6)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일들에 대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그들을 통해 조금도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의 기도가 죽어 있고, 메마르며, 나태하며, 형식적인 뿐이라면, 그런 기도들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간절함은 소리의 크기를 통해서보다,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 표현된다.

*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첫째로 청중이 많아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청중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을 때이다. 둘째로 도저히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때이다(시 22:1, 히 5:7).

5)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은사를 주님이 주신 목적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목적들은 크게 대상에 따라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과, 그 은사의 사용을 통해 유익을 얻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

(1)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령의 은혜를 불러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 등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런가?

(가) 첫째로,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때를 따라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의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생명과 효력을 불어넣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나) 둘째로,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은혜의 방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은 오직 우리 안에 은혜로 일어나는 소망들을 표현하는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은 이 은사를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되고, 말을 통해 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쌍한 것을 듣게 될 때, 그것을 향해

감정이 동요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의 눈이 심령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그의 감정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기 때문이다(에 3:51).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생각 속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단지 머리모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보다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된다.

(2) 우리는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때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모임과 가정과 교회의 수립과 유익을 위해 주셨다. 이는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과 바라는 것들을 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죄나 은혜가 자신들 안에 효력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할 것이다. 자신들이 기도할 때 자비와 은혜를 갈망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때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다른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회중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신자 자신들 안에 있는 부패나, 자신들 안에 있는 은혜나, 자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활동이 동일한 종류의 것일 수 있다.

(나) 둘째로,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성경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 곧 중생한 사람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적합한 기도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주기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 하늘의 보배요 보고인 주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다) 셋째로,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의 상태와 유혹들에 대해 잘 관찰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

해 기도하려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들의 조건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것처럼 합부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길을 관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와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목사가 자신의 양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의 삶과 지식과 환경을 고려해야만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고려해야만 그들에게 유익한 기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 넷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채움을 받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더 잘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

1) 기도의 은사가 머릿속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어떠한 은혜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종류의 은밀한 정욕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위 '외식적인 은사'들은 얼마까지 못해서 소멸해 버린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들을 제거해 버리든지, 혹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직접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버릴 수 없든지, 그들은 얼마까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사라지고 만다.

2)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영적인 생명과 은혜의 원리가 있는 사람, 매사에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사용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과 영혼의 활동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외적인 일에 너무 몰두해서 영적인 일을 게을리 하게 될 때, 이를 민감하게 식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봄으로써 겸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상처받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질문

성품치유란, "나의 성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추는 치유의 과정이자,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감정·행동을 좋은 생각·감정·행동으로 바꾸는 훈련(이영숙, 2005)"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안아주는 '안전기지'와 같은 사람 혹은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애착 이론은 주 양육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심리적, 행동적 발달이 원활하지 않고, 좋은 성품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내 안의 상처를 꺼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지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신의 슬픔을 어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덮어두고, 잔뜩 움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품치유에서 나누는 '상처를 발견하는 4가지 질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질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자신의 과거와 관계를 어렵지 않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발견하는 4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 첫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둘째,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셋째,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넷째, 배우자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세 질문에 각각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상처보다 상대적으로 더 깊고,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남이라면 영원히 보지 않고 살면 되지만, 가족은 계속 봐야 하고, 행여 안 보고 산다 해도 내면에 쌓여 있는 상처의 기억이 불췌 튀어나와, 끊임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나의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분노, 슬픔이 내 자녀 앞에서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2차, 3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언젠가는 상처를 마주 봐야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만 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서 좋은 성품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유를 선물하는 일이자, 소중한 가족에게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상처를 발견했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성품치유학교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7단계를 진행합니다. 이는 존 브래드쇼의 단계를 기반으로, 성품치유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더 쉽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혼자서 7단계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노베이션의 숙련된 강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지요.

다음 칼럼에서는 성품치유의 핵심인 '상처를 치유하는 7단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좋은성품 부모교육, 좋은성품 자녀 세우기, 좋은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좋아성(BSE) 성격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 GTMU(www.goodtreemission.org) 캘리포니아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전문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missio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Churches include Galbraith, Danjok, Hongmei, Baskin, Bannell, Boston, PCA, Alkan, Anger, Young, Killen, Westminster,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다시 떠오르는 태양”

오래전 부족한 제가 지금의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고 목회할 때...

도 모르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아직 미국 목회에 경륜도 없고 이민 교회 목회에 준비도 없던 저였기에...

그러나 반대로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에 서쪽 하늘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은 각기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자가 되기를...

입니다. 또는 아직 중천은 아닐지라도 중천에 태양으로 오를려고...

그러나 반대로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에 서쪽 하늘 바닷가로...

그러나 떠오르다가 만 저에게 우리 주님은 생생한 영감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소명적인 비전의 꿈을 꾸고자 합니다.

어제 저버린 듯한 우리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버린 태양과 같은 인생을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게 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혹은 타의로 다시 떠오를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나는 새로운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될 거야”,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지역, 나이, 학력, 직업, 건강 등의 조건을 초월하여 떠오른 태양과 같이 사육된 믿음이 수없이 많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졸필을 통하여 저버린 태양 이거나 혹은 중천에 떠오르지 못하고 떠오르다가 저버리는 타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를 사모하고 허락받아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삶과 사역의 전성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KAPC 남가주노회에서 신규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KAPC 남가주노회 제 74회 정기노회

노회장 이황영 목사, 부노회장 안병권 목사

제 74회 남가주노회가 2024년 3월 5일 오전 10시 남가주 기쁨의교회에서 열려 노회장 양경선 목사의 사회로 개최예배를 드렸다.

뽕의교회), 부노회장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서기 최경철 목사(에벤에셀교회), 부서기 이광형 목사(복음장로교회), 회록서기 김종규 목사(O.C.제일장로교회), 부회록서기 안광진 목사(샌디에고 소망교회), 그리고 회계에는 한석호 목사(그리심교회)를 선출했다.

안건으로는 노회규칙과 서식을 10여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노회에 2년을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별명부로 넘기는 등 회원권을 강화하였고 서남노회와 분리된 이후로 상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0개의 상비부를 통폐합하여 8개의 상비부로 새로 정비하였다. 또한 중부노회로부터 김선중 목사가 이명하여 가입했고 박세현 목사(예수교회)가 가늘노회 때 교회가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로 가입됐다. 한편, 오랜 동안 공석으로 있던 브니엘장로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내용을 임시당회장인 김민섭 목사의 보고를 들은 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받은 전화령 목사의 선교보고를 받았다. 이어 안병권 목사의 ‘아동보호법 및 학부모권리 회복’을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과 부탁이 있었다. 이외 다른 것들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74회 정기노회를 폐회했다. (기사제공: KAPC 남가주노회)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51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준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51주년 기념예배

“오직 예수님과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하자”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51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3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이윤섭 목사 사회와 프라미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2시 예배는 김중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준섭 목사가 ‘니고데모와 거듭남(요 3:4-8, 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준섭 목사는 “만남 중에는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이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거듭남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거듭난 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 되기 소망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목사는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과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준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강연회에서 이지성 작가가 강의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강연회

“탈북민 구출이 아닌 북한자체를 해방시키는 방법이어야”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이지성 작가의 특별강연회가 5일(화) 오후 7시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지성 작가는 탈북민 사역에 대해 나누었으며 관련 동영상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작가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다 왕이 눈알이 뽕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터에는 현재 김일

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김씨 부자의 신격화를 통한 우상숭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봉수교회의 예배 참석한 목회자의 영상을 보여주며 “북한 봉수교회에서는 예배의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김일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에서 봉수교회 목회자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지성 작가는 “북한의 많은 아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지만 평양의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유는 김일성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북한은 우상국가이다. 우상국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마음 아파한다. 심지어 눈물을 펴며 슬퍼한다. 그들이 마음아파 하는 이유는 자신들에 겪었던 홀로코스트가 연상되어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2023년까지 30년간 150명의 유아들을 구출했다. 그들 중에는 성장하여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다. 탈북민들을 구출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구출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앞으로 탈북민 구출 사역은 불가능해질 거다. 이유는 중국의 AI 감시시스템이 발달해서”라며 “AI는 단순히 안면인식만 하는 것이 아닌 뒷모습과 걷는 모습까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 거리를 다닐 때 AI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자들이 포착이 되면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는데 체포된 자들은 탈북민들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북민 구출이 아닌 북한자체를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뉴송교회 말씀집회에서 김은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달라스뉴송교회 김은호 목사 말씀집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자”

달라스뉴송교회(담임 현지웅 목사) 김은호 목사(오문교회 설립) 말씀집회가 지난 1일(금)과 3일(주일)에 열렸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현지웅 목사 사회로 시작된 3일(주일) 오후 12시 마지막 날 집회는 김제규 목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김은호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라(창 5:21-24, & 히 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은호 목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군가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자와 여행하면 힘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인생의 여행은 죽음의 종착역까지의 긴 여행이기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이 세상에 태어나 그냥 지내며

의 삶을 사는 자’로 나눈다”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삶을 이야기 하며 ‘몇 년을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안식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김은호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Table with 4 columns: Country, Price, Region, Price. Includes USA, Canada, Korea/S. Asia, Europe, N. America, Africa.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1차 임실행위 소집공고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제1차 임실행위 소집을 3월 19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총무 한필상 목사 201-675-9591/서기 김정길 목사 917-682-4566

CPC 썸머캠프등록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CPC 썸머캠프를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하며 3월 24일(주일) 오후 6시에 외부인 등록을 받는다.

▲ 문의: 516-387-9940

[필라] 영생 여름학교

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영생여름학교를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최하며 3월 22일(금)부터 타교인 등록을 받는다.

▲ 문의: summerschool@yspc.org

하나님이 부르신 '일터' 보통 사람들

(1면에서 계속)

근래 일터 사역, 일터 영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앙의 무게 중심이 교회와 주일에서 이제는 일상과 평일로 이동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중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쏠리는 일터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종종 일터 사역과 영성을 위한 모델은 평범한 일터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공적인 기업이나 전망할 만한 전문직 종사자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느 모임에서 일터 사역 강좌를 인도하는데, 그날의 주제가 일터에서의 압박이었다. 이미 정해진 교재와 외국 저자의 동영상 강의가 주어질 나 그 내용을 해설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일터에서의 압박이라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사례로 나오는 이들은 모두 변호사들이었다. 기뻐하며 모인다면 참으로 적절한 모델이겠다 싶었다. 하지만 더욱 평범한 일터에서 단순한 업무나 육체노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와 닿을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사례로 나온 변호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들이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일터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믿는다면 일터 영성과 소명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아니, 평범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일터 사역의 건강한 방향이자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집 앞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순댓국 하나를 시키고 기다리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반찬은 셀프라고 웃으며 알려주신다. 반찬 코너로 가니 따라오셔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신다. "고추 짭질이 참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혼자 외로이 밥 먹는데 뜻밖의 친절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계산하며 고요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자세히 들으니 익숙한 멜로디다. "요게벳의 노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일터에서의 작은 섬김과 친절로 사람

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터 사역은 바로 나와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터 사역의 방향과 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거창하고 성공적인 일터 사역의 사례보다 작고 평범한 영웅들에서 공감과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수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신문에는 버스 기사로 일하는 린다라는 여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녀는 자기 버스에 자주 타는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늦으면 기다리곤 한다. 한 80대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노파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 버스에 실어줬다. 이 노파는 그 뒤로 린다가 모는 버스만 기다리게 되었다. 한번은 추수감사절 즈음에 버스 정류소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여성을 보았다. 그 여성은 처음 이사를 와서 모든 게 낯설었다. 린다는 그 여성에게다가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묻고는 추수감사절에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초대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취재 기자가 묻는다. "짜증내는 승객들을 대하고, 교통 정체에 시달리며, 때로는 좌석에 붙은 검도 떼어야 하는 고된 버스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린다는 이렇게 대답한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데서 저의 하루 기분이 결정됩니다." 린다는 버스 노선 종점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운행이 끝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말한다. 우리는 이 복잡한 도시의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는 린다의 45번 버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 블로그에서 읽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처럼 일상과 일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의 그 평범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찾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by 김선일, TGC

KAPC 뉴욕동노회·뉴욕남노회·기든노회 정기노회



KAPC 뉴욕동노회 제94회 정기노회 사진 촬영했다



KAPC 뉴욕남노회 제26회 정기노회 사진 촬영했다

KAPC 뉴욕동노회

노회장 허민수 목사
부노회장 이상만 목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는 94차 정기노회를 3월 5일(화) 오전 10시 뉴저지열린문교회(시무 허민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와 안건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뉴욕심자기교회(문신언 목사)와 뉴저지복된교회(신철용 목사) 교회 이전 △뉴저지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 김광순씨 장로고시 청원 △뉴저지마누엘교회 고종서 목사, 주사랑장로교회 김성일 목사, 뉴저지열린문교회 정유승 목사 부목사 계속 시무 청원 △주사랑장로교회(최성현 목사) 홍아담씨 목사고시 청원을 처리했다.

신임 노회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허민수 목사(뉴저지열린문교회) △부노회장 이상만 목사(베이직교회) △서기 문신언 목사(뉴욕심자기교회) △부서기 이문범 목사 △회록서기 김세중 목사 △부회록서기 최성현 목사(주사랑장로교회) △회계 강성준 장로 △부회계 한재덕 장로

KAPC 뉴욕남노회

노회장 이재덕 목사
부노회장 조덕남 목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남노회 제26회 정기노회가 3월 5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사랑의교회(시무 이재덕 목사)에서 개최했다.

목사회원 10명과 장로회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노회 상비부 조직을 노회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기로 하였으며, 노회 자체 수련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선임된 KAPC 뉴욕남노회 임원은 △노회장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부노회장 조덕남 목사(뉴저지새교회) △서기

조영찬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부서기 심언 목사(뉴욕센트럴교회) △회록서기 이정환 목사(뉴욕센트럴교회)가 선출됐다.

회무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회 권영국 목사, 기도 전현수 목사, 성경봉독 조영찬 목사, 설교는 이재덕 목사가 맡았다. 성찬예식은 집례 조덕남 목사, 기도 심언 목사, 성경봉독 이정환 목사, 분별과 분찬은 박요한 장로와 신준호 장로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창 27:41-45)의 제목을 통해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로서 받아야 할 명성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목회자로 인정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APC 기든노회

노회장 허상회 목사 유임
김호중 목사안수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기든노회는 제 94차 정기노회를 3월 5일(화) 오전 11시 뉴욕제일장로교회(시무 조성훈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보고와 안건 등의 회무를 처리했다. △뉴저지 개혁장로교회 김영진 목사 교회시무 사임 청원 △임시당회장으로 허상회 목사 파송 △뉴저지남교회(이바움 목사) 김동준씨 장로고시 청원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 김호중씨 목사고시 및 목사 안수 청원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김호중 목사안수 예식을 진행했다.

기든노회는 임기를 2년으로 결정하여 임원은 △노회장 허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 △부노회장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장로교회), △서기 김지희 목사(뉴저지광성장로교회), △부서기 김기환 목사(나무심자기교회), △회록서기 현영일 목사(과테 서머나교회)으로 모든 임원이 취임했다.

회무에 앞서 노회장 허상회 목사의 인도로 드린 개회예배는 기도 이바움 목사(한남교회), 설교와 성찬예식 조성훈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 광고 김지희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리: 홍현숙 기자)



뉴욕노회 제94회 정기노회 중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KAPC 뉴욕노회 제94회 정기노회

퀸즈장로교회 임지홍 목사 안수식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94회 정기노회가 3월 12일(화) 오전 10시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 예배는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 정인수 목사(부서기), 성경봉독 서옥석 목사(부회록서기), 설교 임영건 목사(노회장), 성찬 예식 인도 이종원 목사(전 노회장), 축도 이윤석 목사(직전 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영건 목사는 "브니엘의 아침(창세기 32:24-31)"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아픔이 77세에 첫 혼인을 했을 정도로 그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브니엘의 아침에 주가 주는 축복을 맞이했듯이 주님을 믿고 견디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뉴욕노회는 노회장 임병순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를 진행하여 임원 공천을 통해 노회장 임영건 목사(열린교회), 부노회장 정기태 목사(새벽별

주님교회), 서기 정인수 목사(뉴욕좋은교회)와 부서기 박병섭 목사(뉴욕선교로교회), 회록서기 김경수 목사(뉴욕선교로교회)와 부회록서기 신동기 목사(뉴욕심포니교회), 회계 차상남 장로(퀸즈장로교회)와 부회계 박정봉 장로(퀸즈장로교회)를 공천했으며 회무처리에서 ▲뉴욕심포니교회(담임 신동기 목사)의 교회 이전 허락 청원 ▲담대한교회(담임 허장길 목사)의 뉴욕노회 교회 가입 허락 청원 ▲예사랑교회(담임 손한권 목사)의 장로 추택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의 임지홍 목사 고시 허락 청원 및 합격 후 선교 목사 안수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 장로고시 허락 청원(최성호, 송현규, 정해성, 심인보, 권혁민) ▲노회원 명단 변경 현의 청원 ▲시찰회 조정 현의 청원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목사 안수식이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려 퀸즈장로교회 임지홍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 총회 사진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 총회

신임회장 이규형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 총회가 3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메디슨교회(김원기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규형 목사(준비위원장)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정순원 목사(법규위원장), 특송 김영환, 임관순(찬양사역자), 설교 한재홍 목사(교협총경회장), 헌금기도 이상열 목사(교연직전회장), 축도 허길 목사(교협총경회장)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빌 2:5-11)'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종으로써의 훈련을 받으며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교인들을 섬겨 교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이재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총회는 개회기도 이상중 목사(교협부회장), 총무 보고 김봉규 목사(서기·총무), 정금희 목사(회계)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또한, 1대 회장 이상열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한재홍 선교사(과테말라), 오주영 선교사(캄보디아)에게 선교비

를 전달했다. 이재덕 목사는 선교비를 전달하며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양육해 내는 것이 교역자연합회"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재홍 목사는 뉴욕교역자연합회 3대 회장으로 이규형 목사를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규형 목사는 이준성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천했고 박수로 동의했다.

신임회장 이규형 목사는 "1년 동안 잘 섬기며 여러분이 조언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또한 우리 교역자연합회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만호 목사(교협총경회장)는 "1대 초대회장 이상열 목사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길을 잘 안내해 주었고 2대 이재덕 목사는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하면서 일했다"고 격려했다. "3대 회장 이규형 목사는 순수하고 순박한 목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교역자연합회가 계속해서 연합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모든 순서는 신임회장 이규형 목사의 회회기도와 폐회 선언으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KAPC 기든노회 정기노회 사진 촬영했다



KPCA 102회 서노회가 갈보리침묵교회에서 열렸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102회 서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서명성 목사) 서노회(노회장 강진웅 목사) 102회 노회가 7일(목) 오전 10시 갈보리침묵교회(담임 강진웅 목사)와 줌으로 열렸다. 이번 노회는 목사 회원 17명중 13명(중 2명), 장로회원 14명이 참석했다. 노회가 열리기 전 강진웅 노회장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손흥수 장로가 기도했으며 조준석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강진웅 목사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계 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회장 집례로 성찬예식을 거행했으며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으며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회원점명, 절차보고, 지시위원 선정, 각위원회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용호 목사(갯세마네교회)가 노회에 가입했으며 서노회 목사 회원증을 새로 발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 보고에서

나성영락교회의 KPCA교단과 서노회 탈퇴 관련 소송 건에서 들어간 비용의 잔여금 \$25,976.51을 서노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현의안을 5월 총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잔여금은 변호사 계좌에 있는 상태이며 나성영락교회와 소송에서 교회측과 KPCA와 서노회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송은 나성영락교회의 탈퇴 승인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잔여금 25,976.51달러를 변호사로부터 반환 청구를 했으나 변호사는 총회의 허락이 있을 후 반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에서 노회의 허락요청을 승인하지 않아 노회에서는 5월 총회에서 이 부분을 현의하기로 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창립 51주년 감사예배에서 박은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창립 51주년 감사예배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창립 51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3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손인원 목사 인도와 더드림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11시 예배는 권 만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박은성 목사가 '앞에서 곁에서 안에서(출 13:21-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은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앞서서 길을 보여주시고 곁에서 우리 걸음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내 능력 믿고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홀로가지 않게 하시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신다"며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며 신을 벗을 때부터 광야생활까지 평생 동안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 같이 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모세는 40년 광야생활가운데 그 기동이 가나안땅에 들어가면 없어질 것을 알았다. 그는 그 기동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항상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셔서 동행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온 교인이 축복송을 함께 부른 뒤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은퇴 및 임직식을 가졌으며 3명의 장로와 5명의 집사, 그리고 11명의 권사가 은퇴했으며 지인승 장로와 박유리 권사가 임직됐다.

(박준호 기자)

행복한교회, 일일식당 열어

태국에서 열릴 연합수련회 후원금 마련위해

행복한교회(담임 전정하 목사)는 염소탕 전문 식당인 한미정과 함께 태국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일일식당을 10일(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한미정 식당에서 열었다. 일일식당은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시간배정을 위해 예약을 받았으며 이날 식당에 모인 후원자들은 정해진 메뉴인 염소탕과 보쌈을 맛있게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한미정 김진태 사장과 행복한교회 교인들은 이날 식당을 찾은 후원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음식 서비스를 했으며 식당을 찾은 후원자들 역시 선교에 동참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특별히 리버사이드에서 청년들이 찾아오기도

KAPC 서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 열려

노회장 김성규 목사, 부노회장 국윤권 목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서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가 산타마리아아한인장로교회(담임 서진복 목사)에서 3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개최됐다. 이번 서남노회(전 노회장 박규성 목사)에서는 노회장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 부노회장 국윤권 목사(충현선교회), 그리고 서기 김정훈 목사(대흥장로교회)를 새 임원으로 선출,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더욱 젊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노회는 충현선교회(국윤권 목사)와 토렌스선한목자교회(이승혁 목사)에서 열린 장로 중원 청원 등의 안건

들을 처리했다. 서남 노회는 10여개의 지역교회와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노회로, 노회관계자는 "서남노회 장점에 대하여 1) 경쟁적 정치가 아니라 섬김의 정치라는 차원에서 화합하는 분위기가 넘치고, 2) 담임교역자를 위하여 노회 상회비를 잘 사용하여 은급제도를 잘 유지하고 있고, 3) 건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교회로 섬기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74회 노회에서는 산타 마리아 인근의 피스모비치를 방문, 목회자 부부들이 모처럼의 휴식과 교제,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KAPC 서남노회 전 노회장 박규성 목사가 신임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 박재만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러클포인트교회 고 박재만 목사

OC교회협의회회장으로 천국환송예배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고 박재만 목사(미러클포인트교회) 천국환송예배가 6일(수) 오후 3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러클센터에서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열렸다. 이창남 목사(OC교협 부회장/주님의손길교회) 집례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김영수 장로(OC교협후원회장/OC장로협의회 이사장)가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은혜한인교회)가 '충성된 일꾼(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테너 오위영 목사가 조가를 불렀다.

이어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그리고 영 김 연방하 원의원이 영장으로 조사했으며 이선자 목사(순복음북미총회 미서남부 회장), 민경엽 목사(OC교협 이사장/나침반교회), 심상은 목사(OC교협 총무이사/갈보리선교회), 조현영 목사(큰빛갈리교회), 배기호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조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기동 목사(OC교협 증경회장/세리토스총만교회) 축도로 마쳤다. 고 박재만 목사는 1968년 1월6일 충북진천에서 출생했으며 한세대(B.A., M.Div.), 풀러신학교(Th.M), Assembly of God Seminary(Ph.D.)를 졸업했다. 1995년부터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신원 연구목사, 2003년부터 2006년 나성순복음교회 부목사를 거쳐 2007년 남가주순복음교회를 설립하여 사역을 했으며 2019년부터 6년간 라하브라에 위치한 미러클포인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엘라박(권성연) 목사, 모친 김옥희 권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있다.

(박준호 기자)



행복한교회는 태국선교를 후원하는 일일식당을 한미정에서 열었다.jpg

서부교계 게시판

감사한인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17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714)521-0991

라크마첸버코랄 사순절 찬양집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라크마첸버코랄(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초청 사순절 찬양집회를 '십자가'라는 주제로 24일(주일)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yoosam1963@gmail.com

ANC온누리교회 고정민 장로 간증집회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고정민 장로(복음의전함 이사장) 간증집회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로 15일(금) 오후 7시45분에 개최한다.
▲ 문의: (818)834-7000

샌디에고소망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
샌디에고소망교회(담임 안광진 목사)는 창립 41주년 기념 및 임직감사예배를 17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858)292-0999

코윈, 청소년을 위한 멘토와의 만남

코윈(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장 정정숙)은 청소년을 위한 멘토와의 만남을 1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오렌지한인교회(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친교실에서 갖는다.
▲ 문의: (714)871-8320

새생명비전교회 204임직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중민 목사)는 2024임직예배를 17일(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갖는다. 이날 신임 명예장로, 신임 권사, 신임 안수집사(총 25명)가 임직된다.
▲ 문의: (323)373-0110

유니온교회 추대 및 임직감사예배

유니온교회(담임 구자민 목사)는 원로장로,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 및 권사,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를 17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626)858-8300

교육선교를 위한 ACSI 교사 Certificate 자격증 취득 무료 공개 온라인 세미나

교육선교를 위한 ACSI 교사 Certificate 자격증 취득 무료 공개 온라인 세미나가 Global Vision School 주최로 19일(화) 저녁 8시(미서부 태평양시간)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Zoom 교육 링크는 다음과 같다 ID: 736 047 4791, Security Passcode: 2024
▲ 문의: (714)514-4533, dr.jameskoo@gmail.com



동양선교교회 말씀사경회에서 이동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말씀사경회 성료

‘공화를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말씀사경회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공화를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지훈 목사 사회로 10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에서 이동원 목사가 '상처 입은 치유자(마 9:35-10: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동원 목사는 "헨리나우엔의 책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이 상처 받은 치유자라고 했다. 예수님은 동족 지도자 바리새인에게 상처 입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다. 상처받은 인류를 주목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역시 나보다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

면 첫째 상처 입은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셨다. 둘째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공감하는 가슴이 열려야 한다. 우리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나보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들을 붙들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열리게 된다. 이웃들의 고통 주목하고 가슴을 함께 열 수 있다면 전도는 가능해진다. 셋째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도되고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작은 목자가 되게 하기위해서다. 한번 왔다가 떠나는 인생 우리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제자 삼는 일하다 떠나는 인생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가진 후 이동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교회 취업지원, 다음세대 구직 돕고 자살 막는다”

고용률 감소할수록 청년 자살 사망률 상승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구직지원 활동이 취업률 제고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실업·고용률 등 경기 지표와 자살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이 예년보다 1% 낮아지면 청년 자살 사망률은 1.7% 증가했다. 취업이 잘될수록 자살 사망이 낮아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돈보이게 하고 있다. 유교교회(주경훈 목사)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크리스천 취업스쿨’을 진행했다.

취업스쿨을 담당하는 김훈태 목사는 “청년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지, 자기 적성은 무엇인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음 세대 취업 문제가 곧 교회와 한국의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을 교인들과 공유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는 ‘청년 취업연계 멘토링’을 통해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매년 한세대와 연계해 취업박람회를 열고 교회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



사각지대 ‘위기임신청소년’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위기임신청소년 실태와 나아갈 길’

어린 나이에 임신한 뒤 가정과 유관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12일 국제구호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로 알려졌다.

포럼에서 제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임신청소년의 주요 위기 요인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었다.

12일 국제구호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위기임신청소년의 실태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군목까지 단 ‘한결음’...군목후보생 소집교육 가보니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 세미나실. 군종목사(군목) 후보생 23명이 군목 선배들의 군 선교 현장 이야기를 공책에 기록했다.

교육은 입대 전 사전 정보를 안내하면서 군 선교 사역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전하고 사명감 고취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군인화 과정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하다. 현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을 비롯해 예장합동·고신·백석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침례회 등 8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덜기에 가족 양육을 비롯해 장병의 사명감 고취와 간부들을 군 선교사로 만드는 과정 등의 사역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군목의 임무는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목은 기존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담당할 수 없다. 그렇기에 경험도 적을 것”이라며 “다양한 선배 목회자들을 설교 멘토로 지정해 참고하며 그들이 어떻게 청중과 호흡하고 설교를 풀어가는지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참석한 군목 후보생들은 저마다 소명을 품은 군 선교사가 될 것을 소망했다. 예장고신 군목 후보생인 김동석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비기독교인이 교회로 직면 바로 군인일 때”라며 “전역하고 나서도 장병들의 인식에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하 20도 몽골서 예배자 1000명을 만나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의 겨울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이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1000여명의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콘퍼런스와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인구 350만여명이 살고 있는 몽골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30여년 전 복음의 문이 열린 후 빠르게 성장

세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위기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종교활동 통제도 한몫했다.

(30%) 순으로 자신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위기임신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담당 기관들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조사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위기임신청소년에 대한 복지 프레임의 전환도 요구된다. 취약계층 지원에서 성장계층 지원으로의 전환이다.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1월 25일에 열린 예배 컨퍼런스에 몽골 예배자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도 찬양인도 및 시어, 세션(드럼, 건반,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미디어, 음향까지 파트를 나눠 세미나를 진행하며 몽골 예배자들이 갖고 있던 고민과 필요를 듣고, 화요모임 멤버들의 경험을 나눴다.

1992년 몽골에 처음 세워진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시간도 가졌다. 염 간사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곳에서 생활하는 한인 교민들과 함께 모국어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and dates for the assembly.



“차금법 폐기하라” 17개 시·도 목회자 촉구

전국 기독교총연합회 연석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오범열 김중우 목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 합의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심하보(은평제일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했다. 심 목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제10차한인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며

세계의 역사는 물줄기를 바꾸는 굽직한 사건들이나 인물들과 연관되어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사건의 해석이며 인물의 나열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많은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많은 전환점을 이룬 100주년인 1924년과 1974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4차대 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로잔대회를 통해서 세계교회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세번의 역사적인 대회를 참 석하는 많은 사람이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특히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오박사가 이끄는 로잔운동이 그 역할을 잘 감당 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미주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제10차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10차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KWMC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 위튼대학 빌리그레 함센터에서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사상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은 교단의 벽이 참 높아서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지내 다 보니 교단의 차이보다는 언 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더욱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세계 선교라는 명제는 미주한인들을 뭉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 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1차 한인들이 세계선교를 하자는 모임,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 최된 것이지요. 선교운동이 일 어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 하여 선교를 하도록 모이고, 세 계적인 강사들이 와서 선교에

대해 강의하고 도전하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북미주 한인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독교한인세계선 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라 는 KWMC가 창립된 것이지요. 그래서 매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선교대회를 가지 게 되어 올해 제10차대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럼 선교대회는 어떤 목적으로 열리게 되나요?
이번 선교대회는 포스트팬 데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 하는데 끊겨진 연결을 확인하고 새롭게 연결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연결고리를 재정비하는 대회가 될 것입 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떤 상 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지요. 주제가 "예수, 구원의 그 이름: JESUS, No Other Name!"인데 세상이 아무리 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선교의 기본이라는 것을 재천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 교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 음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와 선교 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단 체와 단체들이 협력을 모색하 는 장이 될 것이며, 교회가 다 른 교회와 함께 선교의 꿈을 이 루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선교 의 동역자들이 세상을 향해 합 께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과의 단절은 좋은 의미에서 세 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좋 으지만 세상 속에서 가장 창의적 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 법들을 배우며 세상과 거리를

좁혀 연결되는 실천적인 부분 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인가?
선교대회는 미주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준비되지만, 세계 각 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과 선교사들, 미주한인교회 목 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세계선교대회입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과 청년들 이 참석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대회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함 께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가 되어 젊은 부모들도 함께 참 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이 대회는 미주 전역에서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시카고에서 개최될 때에는 캐나다에서, 아틀란타에서, 뉴 욕 등지에서 자동차로 하루 길 을 달려서 모였습니다. 이번 대 회에도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 고, 아리조나, 시애틀 지역에서 도 참석을 하실 것입니다. 4년 에 한번 은교회가 휴가를 내어 참가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교회 들이 미주의 대표적인 교회들 이 되었습니다.

4. 남가주지역에 살면서 너 무나 참석하고 싶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주중에 참석하기 가 어려운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휴가 를 내지 못한다면, 저녁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개방하 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까지 저녁시간이라도 참석한다 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5.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인가?
선교대회에는 새벽 부터 특별한 강사들과 선교사 강사들이 선교대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낮부터 목요일 점심 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회는 오전에는 전체가 함께 모여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 구원 의 그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 며 어떻게 함께 선교의 길을 갈 것인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의 특별강의가 있을 것입 니다.

6. 오후 시간은 선교 일반 주제와 전문영역의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20여개의 전문영역으로 나

뉘어 4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전문영역별 트랙은 이를 동안 8시간을 모여서 전문적인 선교 의 KNOW-HOW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디아스포 라선교, 난민선교, 선교적교회, 문화와 예술선교, 미디어선교, 비즈니스와 선교, 교육선교, 기 술과 선교, 선교가버너스, 전방 개척선교, 평화와 화해의 선교, 멤버케어, 채플린시, AI와 인터 넷선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 강은 창의적개척선교모델, 젊 은세대선교동원, ETI, NGO와 국제기구, 예수변증운동 등 다 양하고 중요한 세미나 등 약 150여명의 강사들이 함께 합니 다. 저녁시간에는 각 국에서 모 이신 선교사님들의 선교보고와 간증,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이 끄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대회에는 은혜의 찬 양을 불러 우리에게 많이 친숙 해진 지선 찬양사역자도 특별 초청되어 신앙간증과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7. 선교대회가 왜 중요할까 요? 선교대회를 통해 어떤 유 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 다. 선교대회는 팬데믹으로 인 하여 주춤하게 된 미주한인교 회들의 선교의 불을 지피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또한 교회가 협력하여 선교 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단독으로 선교를 열심히 했다면, 함께 하 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교회들 과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선교 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현장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 어 선교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 니다. 물론 전문선교영역별 선 교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에서 어 떻게 함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교를 할 것인지 발견하고 확 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선교사 들에게는 참 좋은 선교의 파트 너들을 찾게 되고, 지쳤던 선교 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8. 선교대회의 다른 유익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 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선교를 통해 나라 들을 방문하면 몇 분의 선교사 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500여명의 선교사들이

5~60개국에서 한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 기 값을 들여서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모릅니다.

9.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선 교사님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선교대회에 참석하실 것입니 다.
이 선교사님들이 대회가 마 치는 목요일부터 주말에 남가 주지역과 미전역으로 흩어져 산증인의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10. 2000년도에 선교대회 에 참석하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장로님 은 시카고 위튼대학에서 열리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하여 남가주지 역에 6유닛의 선교관을 구입하 고 선교사들이 몇 달씩 머물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더 장기적인 선교사들의 은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뜻있는 성도님들과 함 께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센터 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 습니다. 이런 일은 선교대회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입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하 신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 하여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 으며, 많은 교회들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단순한 아메리칸드 림에서 킹덤드림으로, 세상적 인 성공의 꿈에서 하나님 나라 의 꿈으로 변화한 것을 경험하 였습니다.

11. 선교대회는 2024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사 랑의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등록은 www.kwmc2024.org 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등록하시고 준비 하셔서 이번 여름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기회 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 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어 떻게 인도 하실지 기대하며 참 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 십시오.
dr.yongcho@gmail.com

를 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하도록 이끈다. 그리스도는 죽음 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 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도록 해주었다. 여 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막강하다.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 사면받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 한 신앙 고백이 결정한다. 그리스 도에 관한 고백에 중립이나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루 이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도 전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선 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 광이거나 이상한 인간입니다. 당 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막 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고,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 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 승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열 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기독교의 윤리적 가르침들을 하 나씩 설명하고 있다. 물론 루이스 는 도덕과 '덕목'(virtues)의 본질 에 관하여 먼저 규명한다. 그리고 나서 루이스는 '순결', '성도덕', '용서', '교만' 그리고 성경의 덕목 들인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씩 다룬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 증이다.
제4장 "인격을 넘어서"는 삼위 일체론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 인의 성숙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 의 실존은 인간처럼 한 존재가 한 인격을 구성하는 형태가 아니다. 한 하나님께서 인격을 구성한다 는 점에서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초월한다. 루이스는 "남는다"라 는 개념, 시간과 영원 사이의 관계, 인간 실존 차원과 신적 실존 차원 사이의 차이 등을 설명함으 로써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성자, 성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그리스 도인의 구체적 성숙에 대해 안내 하고 있다.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모 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 하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 사'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가벼 운 책이 아니다. 루이스가 가진 독특한 시선과 표현법 그리고 20 세기 영국 사회를 바탕으로 논리 가 전개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의 합리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 인 필치로 변론한 책이다.
Kangtg1207@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2)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순전한 기독교 내용 정리

〈순전한 기독교〉 루이스가 2차 대전 기간에 네 번에 걸쳐 영국 국영방송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서 방송 연설 원고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미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루이스의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방송 직후에 원고를 정리하여 세 권(방송 강연 (Broadcast Talks)/1941년 10월), 〈그리스도인의 행위 (Christian Behavior)/1943년 4월), 그리고 〈인격을 넘어서(Beyond Personality)/1944년 10월)〉로 출판했다.

세 권으로 유통되던 이 책은 1952년에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순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어 출판되었다. 영국에서는 제프리블레스 출판사가 1952년

7월에 출간했다. 미국에서는 동년 11월 11일에 맥밀란에서 출간 되었다. 루이스는 독자들을 속여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기존 책 들의 합본이라고 밝히라고 출판 사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합본의 새 제목인 〈순전한 기독 교〉가 대중에게 더 어필되었고 대 중의 각광(脚光) 받았다.

첫 출판과 합본의 출판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우선 동료 교수들 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나아가 대중 언론의 반기독교적인 인사 들의 반대는 심각했다. 무신론 주 간지로 악명 높았던 〈프리 싱커 (Free thinker)〉의 편집장 채프 먼 코언은 BBC와 루이스를 맹공 했다. 당대 좌파 지식인이었던 조

지 오웰은 좌익 신문 〈트리뷴 (Tribune)〉에 기고한 칼럼에서 강하게 루이스와 그의 사상을 조 롱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비난과 우려가 있었다. 미국의 젊은 개혁 교회 목사인 제이콥 더크 에핑거 는 루이스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 판했다. 아울러 20세기 최고의 기 독교 변증 신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은 냉정하고 엄격하게 비판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 학 교수였던 그는 전미복음주의 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복음주의 행동 연합(United Evangelical Action)〉에 기고한 글에서 이 책 의 논증은 복음주의 신앙에 파괴 적이라고 혹평했다.

반대로 호평도 많았다. 1947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간지 〈타임 (Time)〉의 표지로 등장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것을 가리켜 미 국 역사 신학자 조지 M. 마즈던 (George M. Marsden)은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천주교의 시성(諡 聖 /Canonization)과 같은 것이 라고 했다. 당시 타임은 미국 주 류 지식인의 여론 형성을 주도했 다. 뉴욕타임스 서평도 루이스를 극찬하는 서평을 쏟아냈다. 〈순 전한 기독교〉는 영미 주류사회 인정을 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네 번의 강연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4장으로

편집했다. 첫 장은 옳고 그름(우 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둘째 장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가? 셋째 장은 그리스도인의 행 동 그리고 넷째 장은 인격을 넘어 서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 를 푸는 실마리"에서 루이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도덕률과 자 연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쉬운 예 를 들어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 한 법칙 혹은 규칙'을 우리는 '자 연법'이라 부른다. 또한 '옳고 그 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상대방 행위에 불이익을 얻는 경우에서 '도덕'을 내세워 비판한다.

루이스는 우주의 배후에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그는 유훈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 있다고 말 한다. 문제는 어느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느냐이다.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 을 주지 못한다. 루이스는 이 궁극 실재(하나님)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무신론을 고려 대상 에서 제거한다. 그리고 범신론과 이원론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제한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신 관만이 남게 된다.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서 루이스는 우리 죄

를 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하도록 이끈다. 그리스도는 죽음 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 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도록 해주었다. 여 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막강하다.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 사면받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 한 신앙 고백이 결정한다. 그리스 도에 관한 고백에 중립이나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루 이스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도 전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선 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 광이거나 이상한 인간입니다. 당 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막 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고,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 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 승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열 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기독교의 윤리적 가르침들을 하 나씩 설명하고 있다. 물론 루이스 는 도덕과 '덕목'(virtues)의 본질 에 관하여 먼저 규명한다. 그리고 나서 루이스는 '순결', '성도덕', '용서', '교만' 그리고 성경의 덕목 들인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씩 다룬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 증이다.
제4장 "인격을 넘어서"는 삼위 일체론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 인의 성숙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 의 실존은 인간처럼 한 존재가 한 인격을 구성하는 형태가 아니다. 한 하나님께서 인격을 구성한다 는 점에서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초월한다. 루이스는 "남는다"라 는 개념, 시간과 영원 사이의 관계, 인간 실존 차원과 신적 실존 차원 사이의 차이 등을 설명함으 로써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성자, 성령에 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그리스 도인의 구체적 성숙에 대해 안내 하고 있다.
C. S. 루이스는 회심한 이후 모 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 하고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 사'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가벼 운 책이 아니다. 루이스가 가진 독특한 시선과 표현법 그리고 20 세기 영국 사회를 바탕으로 논리 가 전개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의 합리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 인 필치로 변론한 책이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 (눅 5:20-25) 찬 344장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다. 즉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죄 사함도 믿음을 통하여 받게 하신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치료하심을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몸의 치료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높이고 그 뜻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높이고 하는 섬김의 삶을 지켜야 한다.

화 죄인을 부르시는 주 (눅 5:27-32) 찬 338장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다. 그리고 레위의 마음에 주인 노릇 하는 사마리아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자로 구원하신 것이다. 레위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자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자신은 거룩한 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생각의 포로로 사는 자들이

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위를 부르신다. 주님이 그를 죄에서 구하여 내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두신 것이며 이것은 완전한 주님의 은혜이다.

수 안식하신 주님 (눅 6:1-5) 찬 324장

안식일이다. 죄인에게에는 안식이 없다. 죄에서는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마리아의 것을 누리지 말고 주님을 누림이 안식을 누리이다. 일평생 수고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안식을 받은 자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

는 안식으로 회복함을 받는 날이다. 율법이 아니라 안식이 되시는 주님의 것을 누림으로써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림으로 안식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목 멸망에서 사는 자 (눅 6:6-11) 찬 290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적 어둠으로 잡혀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이다. 빛 앞에서 어둠의 무덤에서 사는 영적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 안에서 죄의 역사 안에서 사는 자가 있다. 회당에 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생각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매임에서 종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여전히 악한 생각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다. 겉으로는 거룩한 자로 가르치는 자로 있지만 악한 자요 죄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어둠 안에 있는 자요. 죄 안에 사는 자들이다. 멸망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금 나음을 받는 자 (눅 6:17-19) 찬 250장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만지려고 한다. 죄인에게서 죄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의 임함과 같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에서 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살리는 일을 하시며 구원하신다. 오늘날 주님이 함께하시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믿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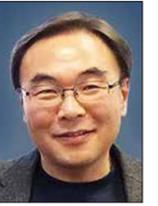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오늘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영적 질병으로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나음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체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영적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자가 넘쳐 나야 한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지체가 되라!

토 주님 안에서 사는 삶 (눅 6:27-28) 찬 289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 안에서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죄의 것을 사용하지 말

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장차 천국에서 상이 큰 삶이다. 주님의 것으로 살라. 자신의 것으로 살지 말라 함이다. 영원한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죄의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 (45)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

일반적으로 30대의 성인들을 밀레니얼스라고, 40대와 50대를 버스터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버스터 세대는 각각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필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두 세대의 필요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스는 Y세대(Generation Y 또는 Gen Y)라고도 하며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성장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정보기술에 익숙하고 사회의식이 강하며, 2000년대의 경기침체 등 세계적인 변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버스터스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다른 말로는 Z세대(Generation X 또는 Gen X)라고 합니다. 버스터스라는 이름은 다른 세대명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대의 성인들은 개인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등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고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모두 의미있는 직업 활동과 직업적인 발전을 위한 연장교육을 필요로 하며, 정기적인 피드백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문화와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주는 협업의 문화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개인의 삶과 사적인 활동을 위해 일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자금융자, 주거비, 등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 고액의 연봉, 재정관리교육 등을 추구합니다. 창업과 부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관심과 열정에 적합한 프로젝트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을 이루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윤리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활동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는 소비자로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같이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연결과 지역사회 동참을 중시하여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계가 그들의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기술이 매끄럽게 접목될 것을 기대합니다.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직장이나 봉사기관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정책과 열린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위치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와 같은 이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진정하고 포괄적인 예배에 다양한 스타

일의 음악을 활용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젝트 제공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가치있게 여기므로 지역적이거나 세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셋째, 최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디지털 기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정보와 소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행사등록, 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해 교회의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신앙과 삶에 관하여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진실성을 중시하고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의문에 관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다섯째, 교회 내에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주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여섯째,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가 교회에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을 기부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들이 교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리더의 위치를 맡겨 주어야 합니다.

일곱째, 교회의 모든 영역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다양한 배경, 문화,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환영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덟째,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를 경류이 풍부한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멘토십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적인 토론을 위해 소규모의 친밀한 세팅을 선호합니다.

열째,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필요로 하므로 그들의 삶을 다루는 내용의 성경공부와 설교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 속의 문제를 다루고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전략들을 활용하여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의 영적, 개인적, 그리고 관계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포괄적이며 생동감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국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1. 좋은 아버지 40계명

한국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좋은아모)"을 중심으로 5월 1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고, 올해의 아버지를 선정, 수상하는 등 작은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버지는 평소 삶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자녀들의 생각을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아버지,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아버지,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을 가진 아버지, 자녀와 동반 성장해가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의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본받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숭순수법하므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 40계명>을 편집,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공부하라는 말에 앞서 먼

- 2. 식사 시간에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라.
3.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일은 존중하라.
4.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라.
5. 아무리 화가나도 자녀를 직접 손으로 때리지 마라. 꼭 필요할 때는 벌을 서게 하거나 회초리를 쓰라. 체벌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다.
6. 똑같은 일로 두 번 야단치지 마라.
7. 함께 여행하는 등 자녀와 공동의 경험을 쌓아라.
8.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라.
9. 힘든 일이라도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심을 길러라.
10.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11. 자녀 앞에서 신호를 어기거나, 새치기, 거짓말을 하지 마라.
12. 자녀와 함께 문구점과 서점에 자주 가라.
13. 가훈을 정하거나 가족놀이 만들 등의 우리 집만의 분

- 14. 휴일은 운동, 가재도구 손질, 독서 등으로 다양하게 보내라.
15.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가정의 역사가 얽힌 것을 소중히 다루라.
16. 자녀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점만 이야기하라.
17. 다 쓴 물건은 재활용하고 안 쓰는 물건은 바꿔쓰는 본을 보이라.
18.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밝히도록 도와주라.
19.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0. 자녀의 친구,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등 사소한 것을 기억하라.
21.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자.
22. 가족 앞에서 굳은 낮으로 지내지 마라. 아빠의 웃음만큼 아들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묘약은 없다.
23.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24. 밥상머리에서 야단치지 마라.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25. 잠시도 가족을 잊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없다.
26. 대화의 창구를 닫지 마라. 아버지와의 대화는 아이들

- 의 미래를 결정한다.
27. 돈 냄새를 풍기지 마라. 아이들의 행복을 돈과 바꾸지 마라.
28. 아이들을 신체로만 보지 마라. 그들도 영적 존재이며,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
29. 내가 자녀들의 거울임을 잊지 마라. 아이들의 표준은 아버지니라.
30. 주 1회는 자녀와 아버지 둘만의 특별 시간을 가져라.
31. 잘못된 일은 자녀에게도 즉시 사과하라.
32.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라 (시험공부 할 때, 계절이 바뀔 때, 학년이 바뀔 때 등)
33. 부모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
34.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35. 자녀 성격보다 특기에 관심을 가지자.
36. 자녀의 일을 스스로가 먼저 말할 수 있게 하라.
37. 공부 잘하는 것을 물질로 보상하지 마라.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다.
38.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가정이 되라.
39. 성공 자체보다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에 목표를 두게 하라.
40.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자. 자녀와 대화와 공동의 경험을 쌓아라.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라완간 종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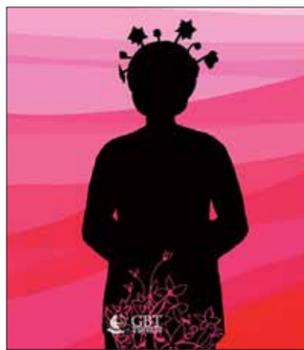
▲ 인구 약 100,000명

▲ 종교 이슬람교 85%, 민속 종교 10%, 복음화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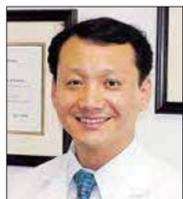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보르네오섬 동남쪽 숲에 산다. 라완간족의 세계관은 영혼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와 예술품도 이 믿음에 기반을 둔다. 그들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 믿어 섬긴다.

▲ 기도제목 1. 번역된 성경이 사용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구약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2.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자신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도록 3. 교육과 기술이 향상되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방사선 노출-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

일본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여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방사선 유출 정도가 심각하고 일본과 같이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서는 방사선 유출이 가져오는 후유증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가 살고있는 환경에서

방사선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일상적인 태양광선이나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라돈가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방사능에 소량이지만 노출된다. 또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유용한 진단 도구로 각광 받고 있는 CT 촬영뿐 아니라

심장혈관 조영술, 엑스선 검사 등은 모두 방사선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증상과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잘알면 방사능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수 있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증상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인체에서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흡수되는 양은 방사선에 에너지 강도와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버트(sievert-Sv)란 단위로 측정 이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려면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다량의 방사능에 급격히 노출될 경우 초기에는 구토증상, 설사,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나면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오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방사선 노출 양이 많을수록 증상이 빨리 오고 심하게 온다. 최근 LA에서도 유명한 병원인 시더 사이나이 병원 방사선과에서 실수로 다량의 방사선을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검사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이 때문에 조사를 한 결과 뇌CT 촬영 중 실수로 실제 필요한 방사선 양의 8배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한 사건이 있었다.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수년 내지 수십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갑상선암, 백혈병이나 임파선암 등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의 모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40세

이하 젊은층의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더 높고 특히 소아기 때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어서 각종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흔히 임상에서 사용되는 검사시 노출되는 방사능의 양을 살펴보면, 가슴 엑스선 검사 때는 0.1mSv 방사능이 발생하고 가슴 CT 촬영 때는 7mSv, 최근 심장혈관 정밀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장 CT는 15mSv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된다. 또 관상동맥 풍선확장술을 할때 받는 방사선 양은 약 15mSv 정도이고 약물을 이용한 심장 스트레스 검사는 약 10-40mSv 정도의 방사능 노출이 이루어진다. 불가피하게 과도하게 방사능 노출이 일어났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방사선에 노출된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하상이 생긴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피하며, 오염된 의복은 벗도록 하고 빨리 응급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 또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을 피하고 방사선 위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사선 노출량을 알려주는 배지를 달도록 하며 방사선 검사시 검사받지 않는 부위는 납으로 차단하고 검사를 하도록 한다. 방사선 중독 해독제로 알려진 요드제제(포타슘 아이오다이드)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암 발생을 줄여줄 수 있지만 다른종류의 암이나 급성 방사선 질환의 예방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또 요드제제를 과량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장부정맥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3-9388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시약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배례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인/터/뷰

양경선 목사 (샘물교회/KAPC 남가주 노회 직전 노회장)

캘리포니아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이 진행 되고 있다. 교계와 단체들은 함께 연합하여 '청원서서명운동본부'(대표대회장 한기홍)를

신설하고 이 서명운동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운동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경선 목사를 만나 본 서명운동의 이유와 목적을 들어 보았다.

△ 청원서 서명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3년 전인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역사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늘날까지 동성애와 성적체성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 가정과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가정을 그리고 교회들

를 주장하며 싸워왔던 미국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을 하여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새로운 선한 법을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 때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인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던 터에 이 서명운동에 호응하기로 하여 주민발의안 한인 서명운동본부를 조직하고 교회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 약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명 중에 무효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선을 넘어서 사인을 한다든지 잘 못 쓴 것을 지운다든지 주소를 쓰지 않고 P.O.Box를 쓴다든지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 70만의 서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10분지 1인 7만표를 한인들이 서명하기로 서명본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며 유권자 등록



양경선 목사

렌스젠더 남성들이 여학생들의 각종 스포츠에서 우위를 보임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7학년 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는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이나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 알려야 합니다.

넷째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허락 없이 학생들에게 젠더와 관련하여 건강 및 정신 검진을 할 수 없고 또한 시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과 교회가 이런 악법들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번 주민발의안은 정당한 것이며 교회들이 힘을 합쳐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만 서명할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분이 나가서 한인들이 아니라도 10명 이상씩 사인을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는 한인교회의 미래, 한인 가정의 미래를 위해 계속 말씀해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또 교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선 목사는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하던 중 1986년에 도미, 개혁신학교를 졸업했으며, KAPC남가주노회에서 1989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토렌스중앙장로교회, 벨앨장로교회 부목사, 글렌데일의 바울신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현재 엘에이 소재 샘물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다. 이 외에도 남가주교회협의회, 목사회 등에서 사무총장, 총무로, KAPC 남가주노회 노회장으로 섬겨왔으며 현재 PPT 전문가(2015년 PPT D.Min)로 목회자 및 시니어를 위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 진 것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을 악법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악법들이 제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캘리포니아 악법들의 철폐

△ 청원서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1월 투표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서명이어야 유효합니다.

△ 발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과 샤워실과 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됨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둘째는 요즘 사회적으로 트

△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이런 악법들을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1세대들이 일구어온 가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오고 있는 봄, 꽃샘추위’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봄기운"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꽃샘추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요즈음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봄기운을 실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봄이 오고 있다는 손짓들을 보고 있는데 요즘 날씨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론 밖을 나갈 때 겨울옷을 챙겨야 할지 봄옷을 챙겨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게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탐스러운 함박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는 멕시코 프립나무가 추워서 내밀던 꽃잎을 도

로 주위 담을까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샘추위인가 했습니다. 꽃샘추위로 인해 여기저기 피어나는 봄꽃들이 오는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봄답지 않게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몹시 날씨가 싸늘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오고 있는 봄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리라는 것을,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봄소식을 확인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 다가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

임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거나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2:6-10로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



꽃샘추위속에서 피어나는 봄 꽃

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흠악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시

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의 뿌을 높이시리도다 하니라."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